

밥 할머니도 인왕산 호랑이도 인형극으로 만나요

+ 늘푸른문화나무

할 것 많고 볼 것 넘치는 요즘에도 옛날이야기가 통할까?
인형극으로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늘푸른문화나무'와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바뀐다. 지역 이웃에게는 문화서비스를,
문화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나누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활동 역사 설화 인형극 : 고양시 역사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형극 소개
인형극 공연 : 건강 인형극, 여성인형극, 체험형 인형극
인형극 교육 : 소품으로 만드는 인형극 놀이

문의 ☎ 031-916-2066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 11-32 제1호



인형극으로 만나는 지역 이야기

한때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콘텐츠였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옛날이야기가 전해졌다. 늘푸른문화나무의 인형극은 마치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듣던 옛날 이야기 같다. 다양한 역할의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전하는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의 시선도 금세 사로잡는다.

이날도 단원들은 일산의 한 복지관에서 '육지로 간 자라'를 주제로 환경 인형극을 공연했다. 이야기에 교육적 메시지를 접목한 공연은 주입식이 아니어서인지 더욱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소규모나 영상으로만 이뤄졌던 현장 인형극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공연을 펼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레퍼토리는 '밥 할머니', '효자 박대성과 인왕산 호랑이', '공양왕과 삽살개' 등 지역 이야기에 기반을 둔 인형극이다. 구성원 모두가 고양시민으로 이루어진 늘푸른문화나무는 지역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무대를 만드는 중이다.

지역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늘푸른문화나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경숙 대표는 고양문화원에서 어르신 인형극단 양성교육 강사로 참여했는데, 당시 인연을 맺은 시니어들의 활동무대를 만들고자 창업을 결심한 것. 현재 시니어는 물론 인형극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까지 공연에 동참하며 세대를 초월한 동료애를 나누고 있다.

66

교육을 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단원들이 지금도 활동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99

무대 뒤에서 인형을 들어 올려 공연을 하려면 체력 또한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60대가 넘는 단원들이 여럿 인데도 이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매번 최선의 열정을 쏟아낸다. 단원들은 앞으로도 큰 보람을 공유하며 오래 활동하고픈 바람을 전했다. 단원의 자격조건은 '인형극에 대한 관심'. 첫 마음을 놓지 않고 열정을 이어가는 늘푸른문화나무의 활약을 응원한다.